

입문

천부경의 입체적 해석

■베일벗은 천부경/ 조하선 지음
천부경은 우리 나라의 정신적, 사상적 뿌리를 이루는 민족 고유의 성전이다. 그러나 그동안 천부경의 위상에 걸맞는 최고의 학문적 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천부경에 대한 완전한 입체적 해석이 담긴 이 책은 삼일신고, 다물홍방가, 도덕경, 팔괘 등을 천부경 사상에 입각해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체적 조건을 위해 전세계의 종교 신화가 총망라되었고, 고대 유물 유적을 통한 고증을 이뤄냈다. 또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격양유혹의 핵심 비밀들이 밝혀져 있다. 천부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해석이 시도되어져 왔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최초의 천부경에 대한 호기적인 설명이다. **불명지리, 15,000원 (02)735-8180**



에세이

업을 벗어난 아름다운 삶

함께 사는 아름다운 금강경·반아심경 풀이/정화스님 지음
깨달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삶의 모습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빈 마음으로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삶과 '나의 나의 것'으로 가득한 마음의 차이다. 우리의 삶은 '나와 나의 것'으로 가득한 '자기 한정'이란 업에 매여 있다. <금강경>과 <반아심경>에 '함께 사는 아름다운'의 진리가 담겨있음을 말하고 모든 불자들이 이 경전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느껴보라고 이 책은 권한다.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 한정'의 업을 벗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신행상당식으로 두 경전이 담고 있는 가르침이 자세이 소개돼 있다. 에세이식의 소주제로 내용을 분류해 읽는 부담도 없었으면만 많은 일화가 담겨 있어 재미있다. **시공사, 10,000원 (02)588-0831**



기타

가려뽑은 감로수 300가지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정유스님 엮음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복이'라고 주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를 불행하게 한다면 감로수도 주어서는 안된다. (보통암장론)에 나오는 말이다. 부처님 경전과 조사들의 어록 같은 정신적 삶을 중요하게 해주는 것이 또 있을까. 이 책은 인간의 영혼을 계몽하는 아름다운 언어들로 감로수를 골라 피운다. 살다보면 상처도 받고 평안도 하기 마련인데 이는 부처님 말씀은 그야말로 감로수가 아닐 수 없다. 경전에서 가려뽑은 부처님 말씀 300가지가 이 책에 실려있다. 사리와 고리, 그리고 상에 걸림만 있다면 이 책을 읽는다면 반드시 자기를 배우고 비워내 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민족사, 5,000원 (02)732-2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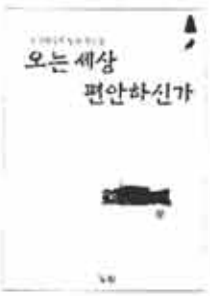
불교입문의 교과서

■절에서 배우는 불교/해자스님 엮음
자성을 고양한 마음으로 연마하고 탐·진·치 번뇌에 오염된 심신을 씻어 내고 해탈로 가는 곳이 바로 절이다. 이곳 절에는 산문을 시작으로 전각, 예배의 대상, 조항불, 공양구, 의식구, 장엄구, 상징물, 생활용품 등이 중생들의 해탈과 교화의 방편으로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것들을 대하면서 그 속에 깃든 의미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으며, 또 궁금해하더라도 마땅히 이를 해소할만한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 이 책은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준다는 물론 그 속에 깃든 깊은 의미와 뜻을 바로 전달하는데 교과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참을 찾는 일반인들도 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출판사, 12,000원 (02)313-5047**



나에 대한 믿음과 희망

■오는 세상 편안하신가/모심화법사 지음
희망보다는 좌절의 쓴맛을 곁들이는 시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종교 하나를 갖지 못하고 다니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희망한다. 모심화법사는 그 종교는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 그리고 희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포츠사이에 '영웅 4차원의 세계'를 연재하고 있기도 한 모심화법사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주어진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마음'을 주제로 인간과 정신의 세계를 조명한 부분도 흥미롭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사연을 한탄치 말라. 자신에게 묻고 답할 수 있도록 되라'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핵심이다. **누림, 7,500원 (02)323-2100**



불교이해의 자료

■100문 100답·불보살·신종 편/고명석·고광영 지음
불·보살·신종을 모두 망라해 그들의 이름과 탄생 배경 등에 관한 역사, 여담, 간략한 이야기, 신앙의 특징과 문화적 양상 등을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상·하 두 권. 대원정사가 펴내고 있는 '100문 100답 시리즈'의 하나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불·보살·신종을 설명하면서 인도의 신화 및 중국과 한국의 토속신화가 불교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그 문화적 양상과 신앙의 특징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점. 인도 신화의 체계적 이해는 물론 우리 문화 속에 들어 온 많은 신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불교를 이해하는데 사견과 같은 자료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책. **대원정사 각권 8,500원 (02)754-1614**



금주의 명저순례

중생의 화두 '나'에 대한 풀이

■단지 그대 모습대로 살라/원연스님 지음
중생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가? 보살의 질문에 스님은 '네가 지금 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너의 미래의 모습이자 운명'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예로 들어 자세히 답한다. 질문과 대답형식으로 구성된 법문집이라 읽기 쉬운 삶을 체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 괴로움과 욕심, 본래 지기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준다. 어리석음의 근원은 욕심에 있고, 욕심의 근원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그것은 결국 괴로움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법문의 핵심이다. 읽고 나면 텅 빈 마음만 남는 책. 그나마만 새로운 무류의 진리를 가득 채울 수 있을 터니까. **운주사 6,000원 (02)720-9372**



잡아함 1,362경에서 가려뽑은 금쪽 같은 말씀 100가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홍사성 지음
세상이 어수선하고 삶이 버거울 때, 막연한 불안 속에서 이정표를 찾을 수 없을 때, 생각나는 분, 부처님 부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경전을 읽는다. 아랑부 경전에서 부처님은 마치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침을 베풀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불법을 하신다. 난해하고 현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때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삶의 진상이 어떠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솔직하고 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 책은 아랑부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민중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잡아함 1,362경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100개의 경전을 골라 간단한 특수장을 덧붙인 것이다. 독자들이 보다 쉽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한것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장승 8,000원/(02)723-1679**



불교환경운동의 지침서

■미래문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간/법륜스님 지음
인간성 상실과 공중재 폐교, 자연환경 파괴 등 인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법륜스님(한국불교환경교육원장)은 '미래문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간'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연기법을 세계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무아·무소유·무아집을 수행의 지표로 삼는다. 그리고 일과 수행의 통일을 강조한다. 스님이 이끄는 정보화에서 방황한 내용을 역으로 이 책은 세상과 자신의 삶을 근본부터 다시 돌아보게 하고 참된 자기실현과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갈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정도행자와 수행과 일,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인간에 대한 스님의 간절한 열정이 묻어났다. **정도출판, 5,000원 (02)3471-5100**



불교환경운동의 지침서

■불교와 환경보존/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엮음
불교사상과 환경의 테마로 한 본격 단행본. 청정국토만들기 운동 6주년을 맞아 불교사상과 환경보존에 관한 연구논문 한 데 모은 것으로 불교환경운동의 교과서와 같은 책. 부처님의 사상 가운데 환경보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논문이나 글을 모아 다시 편자별로 세부 목차를 정해 편집했다. 불교도 환경 선언문 및 성명서를 비롯해 경전속에 나타난 환경보호 성구(聖句), 불교의 자연관, 불교사상과 환경보존, 사찰환경보존, 불교환경운동, 불교의 환경교육, 불교의 생명사상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법장, 법륜스님을 비롯 목장배 오영근 박사명 연기명 정재성 교수 등 23명이 집필위원으로 참여했다. **아름다운 세상, 17,000원 (02)278-6958**



불교교리의 체계적 이해

■불교입문/다카사키 지끼오 지음
여래장사상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쌓은 저자가 30여 년간 불교학을 연구하면서 축적한 해박한 지식은총을 통해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시켜 주고 있는 역작. 대승불교권의 불교인들에게 익숙한 구사(俱舍)·유식(唯識)을 바탕으로 쓰여졌으며, 전통불교학의 맹장인 비역사적 태도를 지양하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성을 드러내 보이는 데 모든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출간된 많은 입문서·개설서들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종교주의의 해석에서 치우쳤던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이 갖는 최대의 장점. **출사성 편역, 우리출판사 4,500원 (02)313-5047**



금주의 추천도서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

■한국불교 기도성지/정성운의 지음
불교에서 기도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위한 불보살의 인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 중생이라도 지옥고를 받는 자가 있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 병든 사람을 모두 구해하겠다는 약사여래, 천개만인과 손으로 중생의 고통을 싣어 아루만저 주겠다는 관세음보살의 인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불보살의 인력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갖가지 모습으로 나무어 감응하신다. 사람에게 전해오는 수많은 영험담이 이를 증명한다.

이 책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저절 보증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한 관음·지장·약사·문수·나한 기도성지 등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불교계 잡지·신문의 전문기자가 필자로 참여, 방방 쓴 생생한 정보가 가득한 이 책에는 신비로운 기도성지 영험담, 절의 역사, 문화재, 절을 찾아가는 길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불교시대사/값 7,000원/(02)730-2500**



부다피아 쇼핑몰이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제품 모델

G2-F21

한화의 새로운 PCS-G2
·도시감각적 디자인
·절전 기능 - 세계최초의 광선식 작동
·파워한 통화(14Wm 사용으로 잡음 율입 제거)
·자동검색 기능 (이통의 일부입력으로 전화번호 검색)
·음성/문자 메시지 기능(문자 메시지는 한글/영문 혼용)
·17종의 다양한 전화벨 소리
·유해 전자파 방지 도료(인체에 미치는 피해 제거)
·전자계산기 기능
·자기번호 송출 기능
·비상 전화 다이얼 기능



크기 : 25x44x26 mm(HxWxD)
무게 : 44g(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시간 : 배터리 S 90분
 배터리 M 168분
 배터리 L 300분
연속대기시간 : 배터리 S 26시간
 배터리 M 46시간
 배터리 L 87시간
색상 : 은색

사은가격: ₩60,000(가입비 포함)

신청서 접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부다피아 쇼핑몰 담당자 앞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우체국 010041-0289770 현대불교신문사

016 PCS 최저가격·최고보시 이만한 제품을 이만큼 싼가격에 준비하였습니다